

서울대학병원 핵의학과

- 1988년 검사실적 157,733건 -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3월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그 이듬해인 1960년 4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동위원소 진료실을 개설하면서 시작된다.

1961년 미국 원자력 위원회로부터 Tracer Lab의 dot scanner, 감마카운터를 기증받아 갑상선 및 혈액학적 검사를 주로 하였으나 1969년 Gamma camera의 도입으로 여러 장기의 영상(image)을 촬영키로 되었다.

1970년도에는 방사면역측정법 (RIA)이 새로이 도입되어 각종 호르몬과 미량물질의 분석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 병원의 특수 법인체로 발전적 탈바꿈을 함으로써 동위원소 진료실이 핵의학과로 독립된 진료과로 승격되었으며 새로운 감마카메라 3대 (ON410, ON420, DyNa) 와 PDP 11 computer system이 도입되어 신장과 심장의 연속검사 (dynamic study)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형 감마선 계측기와 베타선 계측기가 도입되어 방사면역측정의 검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1985년 소아병원이 신축개원하면서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기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도입으로 뇌혈류검사를 실시하고 골밀도검사기기의 설치로 골밀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겸직교수 4명, 전임의사 2명, 의료기사 (약사, 행정직 포함) 30명의 인력과 Gamma camera 7대, scanner 1대 computer system 2대, BMD (Bone Mineral Densitometer) 1대, 감마카운터 및 베타카운터 6대등 장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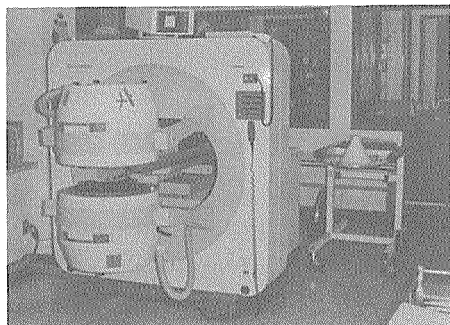
조직을 보면 체내(촬영) 검사실, 체외(검체) 검사실, 소아핵의학 검사실과 영상분석실을 두고 있으며 검사업무를 돕기위해 진찰실, 접수실, 준비실등이 있다.

검사실적은 1988년의 경우 체내검사 12,717건, 체외검사가 145,016건으로 연간 157,733건을 실시 하였으며 체내검사에서는 간장(liver) 3,795건 뼈(bone) 2,726건으로 많았으며 체외검사는 산부인과에서 시행하는 시험관아기 프로그램의 펄수검사인 E2, LH, FSH, PGR도 증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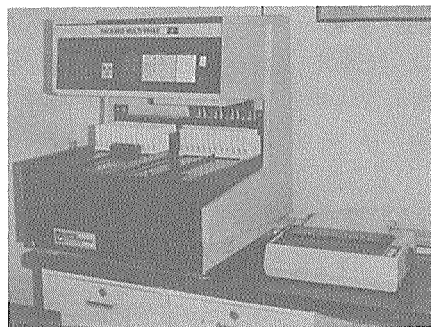
많은 의료기사가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보다 앞서가는 검사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주 1시간 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동 병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핵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1명씩 3개월간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활동도 활발하여 해마다 국내외 학술지에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학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방사자가기록기(autoradiography)의 도입으로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연구와 방사수용체 검사(radioreceptor)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며 SPECT를 이용한 뇌혈류검사, 심근혈류검사등 타 검사보다 좋은 영상(image)을 얻는 검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radiolabeled antibody를 이용한 중앙치료를 시도하는등 새로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핵의학 이용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저 한다.



단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기 (SPECT)



자동 감마선 계측기 (Auto Gamma Counter)